여수엑스포타운 사업자선정 갈팡질팡

탈락업체 반발→토주공 재공고 방침→선정업체 법적대응 불사

주민단체간 갈등속 줏대 없는 LH 비난도

여수 엑스포타운 주민소득창출 사업이 사업자 선정 과정을 놓고 주민들간의 갈등과 분열이 커지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는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주민단체는 물론 사업자로 선정된 주민 단체로부터 맹비난을 받아 도마에 오르고 있다.

28일 여수시 등에 따르면 LH공사는 지난해 12월 12일 (사)여수 덕충지역발전협의회(대표 최옥순·이하 발전협의회)가 (사)마래를 제치고 덕충지구의 엑스포 타운 소득창출사업의 주민 단체로 선정했다.

하지만 원주민 570명 중 57명이 참여한 소수 단체가 사업자로 선정되자 탈락한 주민 단체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주민들간의 분열과 갈등이 커 소득창출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서로 화합하고 단일한 목소리를 내 주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으로 가야 한다"고 우려했다.

(사)마래를 설립한 '덕충주민 이주·보상대책위원회'는 최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민원을 내고 "주민의 10분의 1도 되지 않은 단체에게 주민사업을 주려하는 무리수를 둬 반발을 사고 있다"며 사업자 선정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위 소속 김성곤 의원(민주당·전남 여수 갑)과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등도 지난 18일 발전협의회와 주민 다수가 참여한 (사)마래를 하나로 통합해 주민들이 원만하게 소득창출사업에 동참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LH공사에 협조 요청한 상태다.

이에 따라 LH공사는 현재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수정안을 제시하고, 이 수정안에 대한 기선정된 주민단체의 동의와 재공고에 따른 법적 절차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LH공사는 지난 22일 ▲참여희망 원주민을 조건 없이 전부 수용하고 ▲주민단체 추가 접수·등록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등의 2가지 조건에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기선정된 발전협의회와 지장물 철거 공사에 한해 계약을 추진하고, 폐기물 처리 등의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재공고를 하라고 지역본부에 통보했다.

LH공사는 다음 주중에 지장물 철거 공사에 한해 기선정된 발전협의회와 정식 계약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계약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2가지 사항이 충족될지는 미지수여서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 발전협의회는 570여 명의 원주민을 조건 없이 모두 수용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추가 재공고 지시는 "국가사업에 공고라는 고유한 의미의 근간을 흔드는 있을 수 없는 행위"라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이다.

이에 대해 LH공사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자가 선정됐지만 각종 특혜와 커넥션 등의 의혹이 있다는 유언비어가 난무해 무엇을 해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며 "주민들간의 단일화가 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이 직접 나서 하루빨리 공사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수 엑스포타운 소득창출사업은 50억대 규모의 지장물 철거와 폐기물 처리를 비롯해 무연분묘 이장, 공공건물의 시설관리, 산림수목의 벌채, 파쇄 및 조경, 방치된 지하수 굴착공의 원상복구 등으로 여수 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에 근거해 시행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정원박람회장 7t 소나무 수송작전

산림청 초대형 헬기(S64)가 지난 27일 '201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에 식재할 무게 7t 내외의 소나무를 운송하고 있다. 시는 내년초부터 산림청의 지원을 받아 100여그루의 큰 나무를 대형헬기를 이용해 정원박람회장 부지로 운반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광양 동천 생태조성 市, 3월 공사 발주

광양시는 광양동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3월 관련 공사를 발주하기로 했다.

광양시는 2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광양동천을 홍수예방과 문화.생태하천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지난해 말 용역을 완료했으며 현재 보상비 78억원중 50억원을 지급했다.

보상작업도 택지개발지구와 하천편입 부지가 맞물려 있는 잔여토지, 비닐하우스 등에 대해 광양시에서 우선 보상하고 추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택지 개발시 정산처리 하는 방안으로 합의돼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광양동천의 둑을 확장하고 인접도로 4차로 신설, 산책로.자전거길 조성, 보 개량 및 여울 조성, 서천과 연결동선 구축 등 다양한 하천구조 개선사업이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설 연휴 통관 특별 지원' 광양세관, 지원팀 구성

광양세관(세관장 채광률)은 설 연휴기간중 수출화물의 적기(適期) 선적과 긴급한 수출 원자재 등의 원활한 수입통관을 위해 특별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광양세관은 다음달 16일까지 긴급 수출·입 화물에 대해 '통관 특별지원팀'을 구성해 24시간 통관을 지원한다. 또 수출업체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관세 환급금은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오후 6시에서 8시로 2시간 연장 지원한다.

특히 휴일 및 야간에도 수출·입 통관이 가능하고 환급신청도 '선지급 후심사'로 환급금이 당일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출입 업체들을 배려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보성 실내체육관 명칭 '다향체육관'으로 변경

보성군 실내체육관 명칭이 '다향체육관'으로 변경됐다.

보성군은 체육공원 내에 위치한 '실내 체육관'을 녹차의 고장이라는 지역 브랜드를 살린 '다향체육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군은 전국체전 역도경기 등 전국단위 대규모 체육행사가 실내 체육관에서 개최되면서 지역특성을 살린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지난해 명칭을 공모해 '다향 체육관'으로 확정했다.

올해 다향 체육관에서는 전국 춘계 역도대회, 전남연합회장배 생활체육 경연대회, 군수배 배드민턴 대회, 장애인 한마음대회, 서편제 보성소리 축제 등 많은 경기와 행사가 예정돼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앞으로 명칭 변경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체육관 활용도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선상근기자 sun@

여수 교육사업 5년간 1,300억 투자

市, 13개분야 58개 항목 '5개년 발전계획' 수립

여수시는 앞으로 5년동안 1천300억원의 예산을 학교에 지원하는 내용의 '여수시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마련, 시행한다.

5개년 계획에는 국제화시대를 대비한 글로벌 인재육성, 교원 사기진작 대책,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지원, 관내고교 진학률 향상, 명문대학 진학률 향상 등을 위한 13개 분야 58개 항목의 지원내용이 담겨져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115억원, 영어교육기반조성 127억원, 교원사기진작대책 12억원, 방과후 학교 운영지원 112억원을 지원한다. 또 지역특화사업 15억원, 교육시설환경개선 28억원,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305억원 등 총 714억원이 학교 직접지원사업에 투입된다.

학교에 간접 지원하는 사업에는 교육복지분야 280억원, 문화예술·과학분야 50억원, 체육분야 20억원, 영어교육분야 7억원, 교육시설분야 147억원, 사이버학습센터 운영 83억원 등 총 587억원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시민 대토론회와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해 교육발전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성동범 평생학습과장은 "2004년부터 초·중·고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매년 100억원이 넘는 직접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양규기자 ykpark@

여수 한국실리콘 생산공장 완공

태양광발전 기초소재를 생산하는 공장이 여수산단에 세워졌다.

여수시는 "다음달 2일 박준영 전남도지사와 오현섭 여수시장, 주승용 국회의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실리콘(주)(대표이사 윤순광) 생산공장 준공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남도와 여수시는 지난 2008년 4월 한국실리콘(주)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공장건립에는 사업비 3천204억원이 투입됐으며 태양광발전의 기초 소재인 '폴리 실리콘'을 연간 3천200t을 생산할 수 있다.

한국실리콘은 앞으로 태양광용 웨이퍼 뿐만 아니라 반도체용 웨이퍼에도 사용할 수 있는 고순도의 '폴리 실리콘'을 생산해 경쟁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박양규기자 ykpark@

■ 새얼굴

"복지 농·어촌 건설 총력"

임 유 식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장

"지역발전과 복지 농·어촌건설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7일 취임한 임유식(57)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장은 "모든 업무를 경영선진화 프로그램에 맞춰 개선하는 등 현장중심의 고객만족서비스 업무를 적극 전개하겠다"며 "지역민이 우선이 되는 공익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류지사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해남 출신인 임 지사장은 원광대와 조선대 대학원(건설공학)을 졸업했으며 지난 1982년 한국 농어촌공사에 입사해 해남지사 유지관리팀장, 해남지사장, 나주지사장 등을 지냈다.

가족으로는 부인 김정심씨와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주각중기자 gjju@

光州日報 전남동부취재본부
(061-908-8111)
여수 순천 광양 고흥 곡성 구례 보성
본 부 장 김동호
김계중 국장
주각중 부국장
박양규 부장
이진택 부장
박영진 차장
김은종 기자
선상근 기자
김청수 기자
박성태 기자
하태민 기자

합격을 원한다면 주소창에 "한빛고시학원"만 쳐보세요
가장 많은 수강생! 최다 합격자 배출! 최고의 시설! 최강의 강사진! 압도적 1위 한빛!
7·9급 공무원 학원
2월1일 시작반 현재 수강예약 접수중
사대생 시험패턴 변화바람
외갈심다. 독같은 공무원 대우. 채용인원과 시험기회가 많다.
임용고시보다 교육해적지 광주
>>> 합격하고 싶다면 한빛고시학원을 통하라!! 학원 선택이 합격을 결정한다!! <<<
시대생을 위한 교육행정직 합격특강
9급 문제풀이
소방직
마감유의 현재수강접수중
한빛고시학원
광주 북구청앞
(062) 234-0234